

## 열왕기의 구조와 간추린 내용

다윗 이후부터 여호야킨이 바빌론 감옥에서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기원전 561년),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전개된다./

<b>열왕기 상권:</b> 다윗과 솔로몬(1-11장)	<b>열왕기 하권:</b>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1-17장)
왕국의 분열 남북의 분열과 예언자들(12-22장)	왕국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18-25장)

## 열왕기의 신학

열왕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임금들의 역사에 관한 신학적 반성이다.

### 1. 왕정제도

이 책은 신명기계 저자와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왕정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다. 참다운 임금은 주님의 규정을 지키는 인물이다. 그는 주님의 길을 걸으며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그분의 법과 계명과 관습과 명령을 따른다(1열왕 2,3). 임금의 임무는 백성이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1열왕 3,8-9 참조), 그 백성을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고, 동시에 백성을 “섬기는”(1열왕 12,7)것이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전념하는 일은 임금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열왕기 저자는 이런 의무를 기준으로 모든 임금의 통치마다 짧은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 왕국의 임금들은 모두 악한 임금으로 평가되고,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임금들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신명기계 저자의 친다윗-예루살렘적 경향과 종교적 기준이 내포되어 있었다. 열왕기는 남 왕국의 임금들 중에서도 요시야 임금을 가장 큰 성왕으로 묘사하고(2열왕 22,1-23,30), 므나쎄를 가장 포악한 임금으로 평가한다(2열왕 21,10-18).

### 2. 솔로몬 왕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왕국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실정과 종교적 배신으로 요약된다(1열왕 11,1-13). 열왕기가 고발하고 있는 솔로몬 정책의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 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렸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방민족 출신이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결혼은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② 7년에 걸친 성전 건축과 13년간 계속된 궁궐 건축은 과도한 노동력 착취와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고, ③ 유다 지파의 인재들만을 등용하는 편파적 정책은 북쪽 지파의 인재들이 불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3. 다윗과 그의 왕조

솔로몬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다윗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올바른 임금의 본보기로서 후대 임금들의 모범이 된다. 예를 들어, 아사는 자기 선조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1열왕 15,11), 요시아는 자기 선조 다윗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2열왕 15,11).

열왕기 저자는, 다윗 후계자들의 불순종을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분열과(1열왕 11,9-11) 유다 왕국의 멸망을(2열왕 23,26 이하 참조) 가져온 직접 원인으로 본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1열왕 2,4에서 경고하는 위협에도 다윗 집안에 내리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고 믿는다. “네 자손들이 제 길을 지켜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걸으면,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1열왕 2,4)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종 다윗을 생각하시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2열왕 8,19)

마침내 열왕기는 한 가닥 희망을 남기며 끝을 맺는다. 열왕기 하권 25장 27-30절에서는 여호야킨의 석방과 함께 그가 임금으로서 대접을 받는 내용이 보도된다. 이는 다윗 왕조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희망적으로 암시한다.

#### 4. 역사의 주인은 하느님(예언자들의 개입)

열왕기에는 임금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예언자들의 설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1열왕 17장- 2열왕 13장), 이 예언자 설화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안에서 실현됨을 확인시켜주는 신학적 기능을 갖는다.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한 개입은 열왕기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처럼 열왕기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종교 영역에서만 아니라 윤리와 정치 영역에서도 탁월한 자리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한 분 “임금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 5. 계약 궤와 예루살렘 성전

신명기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열왕기는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특별한 자리를 부여한다. 우선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성읍이며(1열왕 8,12), 이러한 성소의 중요성은 성전 봉헌 때에 솔로몬이 바친 기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1열왕 8,23-53).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어떠한 생존 환경에서도 하느님과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이다(탈출 33,7의 “만남의 천막” 참조).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경신례 생활에서 중심이 된다.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부각시킨 까닭에 성전 경신례를 담당할 레위 지파 사제들의 지위는 열왕기 전체에 매우 부각되어 있다. 열왕기 상권 8장 1-6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부터 그들이 이미 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예로보암이 저지른, 단과 베텔 등의 지방 성소에서 이루어진 예배는 부정한 것으로 고발된다. 열왕기 저자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바치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한 왕국에 총체적인 단죄와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비록 그 왕국의 임금이 바알의 제단을 철거하여 주님께 충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2열왕 3,1-3)